소식지 제9호

2012년 4월1일 발행 발행인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제 나카무라 쥰



추도 · 기억 ~동일본 대재해로부터 1년~



2012 년 3 월 11 일(대림절 제 3 주일) 후쿠시마현 신지마치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에서는, 성당이 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어, 신도 집 부지에 텐트를 치고 주일과함께 재해 1년, 쓰나미에 의해 사망한 신도 3분의 별세자를 기억해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대지진 당일 신지마치 진도는 6 강으로, 쓰나미는 지진으로부터 약 1 시간 후 오후 3 시 40 분경에 도달했습니다. 쓰나미 피해로 인한 가옥의 파괴와 반파 이상은 517 가구, 지진 피해로 인한 파괴와 반파 이상은 81 가구에 달했습니다. 쓰나미에 의한 침수지역은 실제 마을지역의 5 분의 1 에 이릅니다. 인적 피해는 신지마치 전체 인구 8200명 중 사망자 100명, 행방 불명자 10명 (2011년 6월 30일)에 달했습니다. (피해현황 데이터는 "홍보 신지"에서 전재)

동일본 대재해 (도호쿠지방 태평양해 지진) 기도

2012년3월11일 일본성공회 주교회

「동일본 대재해를 위한 기도」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항상 보호해 주시는 주님, 동일본 대재해의 모든 별세자와 자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도드립니다.

큰 지진 재해에 의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인자하신 주님의 팔에 안겨 쉴 수 있도록, 또한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오염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 피난한 사람들, 지금도 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곁에서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진 복구를 위한 모든 일이, 아픔이 많은 이 지역에 희망을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위로의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곤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 멘

케서린 • 제퍼슨=쇼리 미국성공회 대주교 피해지 방문

2월 1 4 일부터 16 일에 걸쳐서 피해지를 방문했습니다. 14 일 밤에 히로시마로부터 도착해, 15 일 아침, 게센누마로 출발,



게센누마에서는 프 로젝트와 관계하고 있는 「작업장히마 와리」의 스텝이 안 내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불완전한 말이 끊나지 않은 게센

누마 시가지를 처음 눈으로 본 일행은 말을 잃었고, 「어느 정도 높이 만큼 파도가 왔는가?」

「몇 분이 돌아 가셨는가?」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게센누마에서 스즈가와로 이동하고, 프로젝트 외국인 지원 프로그 램 참가자로부터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 1 6 일에는 신지마치 를 방문,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신도 분 들의 안내로 교회 역사 와 피해시의 상황을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

듣고, 교회를 계속 지켜오고 있는 신도분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쇼리 주교는 피해 지 방문을 끝내고, 매우 마음 이 움직였다. 일본성공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라는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일본 성공회 11 교구 함께 기도하고, 기억한 3 월 11 일 • 도호쿠 교구

도호쿠교구 「광야 예배」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관리 목사 사제 야곱 하야시 쿠니히데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는 동일본 대지진 1 주년을, 동시에, 쓰나미로 인해 돌아가신 3 분의 신도 (이삭 미야케 미노루 형제, 수잔나 미야케 요시미 자매, 그레이스 나카소 쥰코 자매)의 별세기념일로 맞이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1 주년의 날 예배는, 저희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의 소원을 받아 주셔서 성당이 보이고, 이소야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장소에 큰 천막을 설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는 일본 성공회 수좌주교 · 우에 마츠 마코토 주교가 설교를 맡아 주셨고, 한일 협동 프로젝트에서 파견된 대한 성공회 서울교구의 이정호, 이대성 신부가 참여해 예배 봉사도 했습니다. 또한, 집전은





쿠니히데 사제가 했고,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나카무라 쥰 사제가 보조를 맡아, 예상을 넘는 55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의 신도는 물론, 관구 관계자, 인근 교회의 신도, 지역 분들,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스탭,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후지 유치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실시 된 성찬식은 주님이 이 황야에도 와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의 다윗 미야케 쯔요시 형제가 대표로 인사하고, 피해 지역의 슬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지원 해 주실 것을 언급 했습니다. 피해 지역인 동일본 대지진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성공회 11 교구 함께 기도하고, 기억한 3 월 11 일



오사카교구

동일본 대지진 1 주년을 기념하여 "기도와 찬양 · 동일본 대지진 1 주년 기념 성찬식"이 오사카 교구 주교좌 성당· 카와구치 기독교회에서 3월 10일 (토) 오후 2시 부터 진행 되었습니다. 집전은 사무엘 오니시 오사무 오사카 교구 주교.. 설교자는 안드레 나카무라 유타카 고베 교구 주교. 찬양에 루시 하마자키 타카코 자매를 맞이해 봉헌 예배. 참석자 137 명. 헌금 141,007 원을 구호 모금으로 드렸습니다.



고베교구

고베교구 교회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1 년 기념 예배가 보호되었습니다. 주교좌 성당에서는 나카무라 주교의 집전 · 설교로 이루어진 예배 후 청년회 지원 카페. 2시 24 분에는 묵도가 바쳐졌다.



중부교구

중부 교구 각 교회에서도 3 월 11 일에는 지진 1 년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계 필리핀 사람 이 많이 모이는 카니 미션에서는 주일 성찬식 속에서 시간을 갖고 촛불을 밝히고 특별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에비하라 씨를 초청하여 가마이시 베이스 보고회 (삿포로 그리스도 2/26)

훗카이도교구

지진으로부터 일년이 경과했지만, 일본 성공회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기능은 올 한해 계속됩니다. "카마이시 베이스"를 중심으로하는 홋카이도 교구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 년간 계속됩니다. 더욱더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며, 홋카이도 교구 지진 지원실에서는 "홋카이도 교구 지진 지원실 중간보고"와 "자원 봉사자 핸드북"을 편집. 부활절에는 여러분의 손에 닿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교구 지원실 뉴스 24 호 '에서) ※ "카마이시 베이스 블로그"는,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꼭 참조하십시오.

교토교구

교토교구 주교좌 성당 (성 아그네스 성당)에서 매주 화요일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를 기억하며 낮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 월부터 교토에서도 모여 기도를 바칠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려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교토 교구 지진 대책 실의 블로그

(http://nskk-kytsinsai.blogspot.jp/)를 참조하십시오.

키타간토교구

교구에서 결정된 추모 예배 등은 계획하지 않습 니다. 각 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동일본 대지진 일주년 대도" 를 기도하고 "주교회 메시지"을 읽었 습니다. 또한 도쿄 인근 사이타마는 도쿄에서 열리 는 NCC 와 가톨릭 교회 합동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히타치 성 안드레 교회 예배였습니다. 설교 전에 주교회 메시지를 낭독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 특히 별세하신 분들의 영혼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동경교구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고 기도

지난 3 월 11 일, 도쿄 교구는 각 교회에서의 기도와 함께 성 안드레 아 주교좌 성당에서 오후 2 시부터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에는 약 120 명이 모여 지진을 기억하고, 명상 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쿠하마교구

3 월 3 일 (토), 요코하마 성 안드레 아 주교좌 성당에서 "동일본 대지진 후 일 년 기념 성찬식 · 강연회"를 개최. 지진 별세자의 영혼과 피해 자를 기억 하고 평안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기 를 기도, 원조 수도회 타카이 요시코 수녀에게서 "대지진 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의 테마로 강연을 했습니다.



큐슈교구

동일본 대지진 일 주년을 맞아 추모 및 재생을 원하는 합동 기도회가 3 월 11 일 일본 기독 교단 후쿠오카 중부 교회 에서 개최됐습니다. 후쿠오카 시내의 가톨릭, 성공회, 기독교 단, 침례교, 루터교의 각 종단의 대표가 공동 지번하고 약 220 명이 참가. 성공회에서는 30 명이 참석했다. 2시 46 분에 거문고로 추모 노래? 연주되고 묵도가 드려졌습니다.

오키나와교구

· · · 그때를 잊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

"동일본 대지진 3.11 기념 자선 콘서트 '가, 오키나와 기독교 협의회 주최로 오키나와 그리스도교 학원 채플에서 오후 4 시부터 교파를 넘어 약 250 명이 참가해. 제 1 부 기도의 시간, 2 부 콘서트로 구성되어 개최되었다.

「**힘내자!일본**」이라고 말하지마 키타 칸토 교구 미토 성 스데반 교회

목사 · 사제 사이토 히데키

올 한해 항상 머리에 있던 구절이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라, 우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라, 우는 사람과함께 울어라"(롬 12:15). 우리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질투를 기억하고 "지금 봐라, 나도!"라고 생각, 좀처럼 함께 기뻐하지 않는.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격려하고 싶어진다. "괜찮아, 괜찮아, 긴 인생 · · "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지난해 3월 11일 이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을 걸어 격려 했었던가. 예배당은 무너지고, 원 건물은 균열,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하지" 머리는 새하얗고, 마음은 깜깜했다. 그 마음에 한줄기 빛이 연결된 것이 "히타치의 목사관을 자원 봉사 센터로 개방 해주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다.케이 한신으로부터 2개월 사이에 약 150명의 분들이 와서 히타치, 미토,, 오나하마에서 활동했다. 이 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이히타치, 미토에서 시작되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균열이 생겨 철거되었던 종탑이 부활했다 미토 성 스데반 교회

이불을 모았다. 부인들은 저녁 식사를 차렸다.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히타치, 미토의 신도, 보호자도 각각 피해가 있지만 자원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활동했다.

이들을 통해 느낀 것은, 케이한신에서 온 분들은, 잔해 철거에 온 것이 아니다. 지붕 수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강하게 느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히타치의 목사관을 개방해 좋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히타치의 교회는 선교 100 년이라는 기념의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최고의 준비 시간을 주셨다. 교회는 이 활동을 통해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배웠다.



지금 케이한신 자원 봉사 센터는 오나하마로 이동했다. 히타치, 미토 교회는 이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을 오나하마 교회에도 나누고 싶어 활동하고 있다. 아직도 계속해야 할 활동이지만 함께 있어 주시는 주님의 지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 지진 1 년을 되돌아보고 세인트 폴 유치원 (고리야마시) 원장 키쿠치 아쯔코

2011 년 3 월 11 일 대지진 날, 저는 세인 트 폴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전과 전화 회선의 혼잡으로 원아의 각 가정과 안부연락도, 운행중인 교직원의 상황도, 집에 둘이서 있던 우리 딸의 안부도 모른 채 "살아있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만이 지나갔던 그날.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더해진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으로 자주 철수를 위해, 정말 좋아했던 많은 원아와 보호자와의 슬픈 이별도 있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 가능한 한 노력을 하면서 교직원 일동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괜찮아! "라고 몇번이나 반복해 말하며 미소를 잊지 않고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리야마에 남아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원아 · 보호자의 존재, 그리고 멀리서부터 후쿠시마 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원내 방사산 측정 포인트

2 월 들어 감기로 쉬고 오래간만에 등원한 원아가 "저기요. 저는요. 빨리 친구들 옆에서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뻐요. "라며 만면의 미소로 말해주었습니다. 방사선으로 피난을 떠났던 원아도, 빨리 고리야마에 돌아가고 싶다! 친구와 놀고 싶다! 라고 마음 속에서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또 괴로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TV 에서 「자」 「경」 「동정심」등등 「마음」을 사용한 한자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이전의 나라면 기분에도 두지 않고 간과했던 광고지만,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지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많은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일, 원아의 일, 보호자들 것을 기억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격려의 전화나 편지, 메일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돕는 것의 중요성, 자신은 혼자가 아님을 강하게 느끼는 1 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고, 느끼고, 계속 전하는 것 센다이 성 프란시스 교회 사무엘 와타베 마사히로

3 월 11 일 대지진 후, 바로 회사를 조기 은퇴하고, 홀가분하게 된 자신이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자원 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런 인도하심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진 후 다시 취직 활동도 했었지만, 어려운 국면도 있어 취업을 일단 접고, 몇 번인가 카마이시와 미나미산리쿠에 구호물자 수송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그후 나토리시 가설 주택 "하코주카 사쿠라 단지 '에 10 월부터는 "메데시마 지구 " 생활 지원으로 2 곳의 "장보기 투어"의 자원 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보기 투어"의 자원 봉사에 갔을 때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먼저 피해 입은 분들과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 • • 그렇지만, 소형 버스를 타고 나서 그런 걱정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이 분들이 피해 입은 분들인가 싶을 정도로 차 안에서는 즐거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피해자로 피해지역인 유리아게에 동반했을 때는 역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유리아게의 바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보기 투어"에 참가하여 가장 마음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 피해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에 있습니다. 황량한 피해 지역 현장에서 차로 20 분 정도 달리면 그곳에는 벌써 일상 생활로 돌아간 장소가 있습니다.

첫 생각은, 같은 피해 지역이 근처에 존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구경도

좋으니 피해 지역을 삶의 눈으로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진 이후, 자원 봉사로 가마이시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이 찍어서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현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토리의 장보기 투어에 참가하여 이미 9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재해 지역의 사람들과 뭐든지 말할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흥을 향한 먼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모두의 힘을 모아 지원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다이 베이스 2,3월의 활동

□시즈가와 홈 헬퍼 2 급 강좌

3월 10일 (토) 외국인 지원의 일환으로 다녀온 홈 헬퍼 2급 강좌가 드디어 최종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총 8회 강좌를 받았던 6명의 필리핀 엄마들은 3월 13일부터 5 일간의 실습에 들어갑니다. 자격 취득까지 조금더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쿠젠다카다 등에서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사 양성 강좌가 시작됩니다.



□각지에서 방문단

2월 18일(토) 오사카 교구에서는 "기도와 교제의 여행" 일행이 센다이 공항에 도착. 야마모토마치 후지 유치원, 신지마치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를 방문. 2박 3일 여정 으로 시즈가와,이시노마키시오가쯔, 구시가지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3월 12일(월) 중부 교구에서 6명이 내방. 13일(화)은 신지마치에서 봉사 활동, 14일 이시노마키시, 미나미 산리쿠, 게센누마시를 방문했습니다. 기타 개인적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도 다수 오셨습니다. 해외에서는 권두에서 소개한 미국 성공회 캐서린 제퍼슨 쇼리 대주교 일행이 피해 지역을 방 문, 이웃 한국에서는 서울교구의 사제 2명과 조선 일보 기자, 서울근교의 지방 도시 방재 관계부처의 시 직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건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022-265-5221 FAX:022-748-5321